

放翁詩餘

申 欽

放翁詩餘序

中國之歌 備風雅而登載籍 我國所謂歌者 只足而爲賓筵之娛用之 風雅籍則否焉 蓋語音殊也 中華之音 以言爲文 我國之音 待譯乃文故 我東非才彥之乏 而如樂府新聲無傳焉 可概而亦可謂野矣 余旣歸田世固棄我 而我且倦於世故矣 顧平昔榮顯已糠粃土苴 惟遇物諷詠則有馮夫下車之病有所會心 輒形詩章而有餘 繼以方言而腔之而記之 以諺此僅下里折楊 無得駱壇一斑而其出於遊戲 或不無可觀

一一六.

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무쳐세라
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뉘 이시리
밤중만 一片明月이 기벗인가 흐노라
山村雪後 石逕埋兮
柴扉且莫開兮 訪我有誰哉
中宵一片明月兮 是吾朋兮

방옹시여

신 흙

방옹시여서

중국의 노래는 풍(風:풍류)이나 아(雅:문아)를 갖추어 서적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노래라는 것은 다만 손님을 맞이하는 잔치에서 즐거움을 북돋기 위해 쓰일 뿐 풍아(風雅)로써 서적에 실려 있지 못하다. 아마도 말과 소리[語音]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음(音)’은 말하는 것이 곧 ‘문(文)’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음’은 번역을 통해서 ‘문’이 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에도 문사(文士)가 적지 않았지만 악부(樂府)와 신성(新聲)으로 전해지는 것이 없을 따름이니, 가히 개탄스럽고 또한 조야하다 이를 만하다.

내가 전원으로 돌아옴은 세상이 본디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에 지쳤기 때문이다. 돌아보건대 지난날의 영화와 현달은 이미 쪽정이와 겨나 두엄풀 같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되었다. 다만 물(物:자연)을 만나 읊고자 한즉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병이 있어, 마음에 맞는 것이 있으면 문득 시장(詩章:시의 장(章)과 구(句))을 본뜨고, 남음이 있으면 방언으로 이어 강조(腔調;곡조)를 삼고 이언(俚諺:속된 말)으로써 기록하였다. 이것이 한갓 시골의 노래일 뿐이어서 문단에 보탬이 될 것은 없으나, 유희에서 나왔어도 볼 만한 것이 없지는 않다.

116.

산촌에 눈이 오니 돌길이 묻혔구나
사립문 열지 마라 날 찾을 이 뉘 있을까
밤중에 한 조각 밝은 달이 내 벗인가 하노라

一一七.

功名이 그 무엇고 헌신팍 버스니로다
 田園에 도라오니 麋鹿이 벗이로다
 百年을 이리지냄도 亦君恩이로다
 功名是何物 如脫弊履
 田園歸處 麋鹿爲友
 百年此中 過亦君恩

一一八.

草木이 다 埋沒한 제 松竹만 푸르렀다
 風霜 섰거친 제 네 무스일 혼자 푸른
 두어라 내 性이어나 무려 무슴히리
 草木盡埋沒 松竹獨青青
 風霜搖落時 爾何獨青青置焉哉
 不須問兮 亦各性只

一一九.

四皓ㅣ 진짓갓가 留候의 奇計로다
 眞實로 四皓ㅣ면은 一定 아니 나오려니
 그러도 아니냥혀여 呂氏客이 되도다
 四皓眞也僞 留侯奇計
 實有四皓應不出
 終爲呂氏客

117.

공명이 무엇인가 헌신팍 벗은 이로다
 田園에 돌아오니 사슴이 벗이로다
 평생을 이리 지냄도 임금의 은혜로다
 * 麋鹿(미록): 고라니와 사슴

118.

초목이 다 묻혔어도 송죽은 푸르렀다
 바람서리 섞어칠 때 네 어찌 푸른가
 두어라 저들의 성품이니 내 물어 무엇하리

119.

사호의 진심인가 장량의 계략인가
 진실로 사호라면 절대 아니 나오려니
 그러나 아닌 양하고 여씨 객이 되었구나
 * 四皓(사호): 진나라 말기 난리를 피하여 상
 산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인 상산사호
 (商山四皓, 동원공, 기리게, 하황공, 녹리
 선생)를 줄인 말. 皓(호)란 본래 희다는 뜻
 으로, 이들이 모두 눈썹과 수염이 흰 노인
 이었다는 데서 유래.
 * 留候(유후):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인 장
 량.
 * 呂氏(여씨): 한나라 고조 유방의 황후인 呂
 后(여후). 유방이 죽은 뒤, 자신의 소생을
 태자로 세우고, 여씨 일족을 고위고관에 등
 용시켜 여씨 정권을 수립함.

一一〇.

兩生이 기뉘런고 眞實로 高士ㅣ로다
 秦쩍의 일흠업고 漢쩍의 아니나니
 엇더타 叔孫通은 오다말라 ㅎ는고
 兩生其誰 正是高士
 秦時無名 漢時不出
 是何物 叔孫通使來不來

一一一.

어제밤 눈은 後에 돌이조차 비취엿다
 눈後 돌빚치 물그미 그지업다
 엇더타 天末浮雲은 오락가락 ㅎ는노
 昨夜雪後 月又來照之
 雪上月色兮 清光十分
 底事天末 浮雲往來

一二二.

넋ㄴ에 ㅎ오라바 므스일 셔잇는다
 無心흔 저고기를 여어무슴 ㅎ려는다
 아마도 ㅎ믈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드리
 溪邊鷺立何事
 魚自無心底事窺
 既是一樣水中物 相忘也宜

一二三.

헛가래 기나자르나 기둥이 기우나트나
 數間茅屋을 자근줄 웃지마라
 어즈버 滿山蘿月이 다 내거신가 ㅎ노라
 椽任長短 棟任欹傾
 數間茅屋小 且莫笑
 滿山蘿月皆吾有

120.

두 선비는 누구인가 진실로 고결하다
 진나라 때 이름 없고 한나라 때 아니 나니
 어찌하여 숙손통은 오지 말라 하는가

* 兩生(양생):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叔孫通(숙손통)이 한나라의 예절을 세우고자 노나라 선비 30명을 초빙할 때, 100년의 덕이 없어 예절이 서지 않았다고 나가기를 거절했다는 두 선비.

121.

어젯밤 눈 온 뒤에 달이 따라 비추었다
 눈 온 뒤 달빛이 맑음이 그지없다
 어떠타 하늘 끝 뜬구름은 오락가락 하는가

122.

넋가의 해오라기 무슨 일로 서 있는가
 무심한 저 고기를 어찌 하려는가
 아마도 한 물에 있으니 잇는 것이 어떠리

123.

서까래 기나 짧으나 기둥이 기우나 터지나
 몇 칸 초가집이 작을 줄 웃지 마라
 어즈버 만산나월이 다 내 것인가 하노라

* 蘿月(나월): 담쟁이덩굴 사이로 바라보이는 달.

一二四.

蒼梧山 헝진 후에 二妃는 어디간고
 흠씩 못주근들 셔름이 엇더튼고
 千古에 이 뜻 알니는 뎃습핀가 헝노라
 蒼梧日落 二妃何所
 死不同時 恨何極
 千古知心是竹林

一二五.

술먹고 노는 일을 나도 원줄 알건마는
 信陵君 무덤우회 밧가는줄 못보신가
 百年이 亦草草헝니 아니놀고 엇지헝리
 飲酒遊亦知非
 君不見耕犁遍及信陵墳
 百年若草草 不遊何爲

一二六.

神仙을 보려헝고 弱水를 건너가니
 玉女金童이 다나와 못논괴야
 歲星이 어디나간고 기날인가 헝노라
 欲見神仙渡弱水
 玉女金童來相問
 歲星何所是吾身

一二七.

얼일샤저 鵬鳥 |야 웃노라 저 鵬鳥 |야
 九萬里長天에 므스 일로 올라간다
 굴형에 뱀새 참새는 못내 즐겨헝는다
 痴平鵬鳥 强乎鵬鳥
 九萬里長天
 爾胡爲溝壑槍榆彼微禽兮

124.

창오산 해진 뒤에 두 왕비는 어디갔나
 함께 못 죽으니 설움이 어떠한가
 천고에 이뜻 알기는 대숲인가 하노라
 * 二妃(이비): 중국 순임금의 두 왕비인 娥皇(아황)과 女英(여영). 순임금이 蒼梧山(창오산)에서 죽자 임금을 따라 창오산 소상강에 빠져 따라 죽음. 이들이 흘린 눈물로 아롱진 대나무를 瀟湘斑竹(소상반죽)이라이라 함.

125.

술 먹고 노는 일이 잘못된 줄 알지마는
 신릉군 무덤 위에서 밧가는 줄 못 보았는가
 평생이 역시 초라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 信陵君(신릉군): 위나라의 無忌(무기)가 신릉에서 봉함을 받아 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그의 무덤은 밧이 됨.

126.

신선을 보려하고 약수를 건너가니
 선녀와 선동이 다 나와 묻는구나
 세성이 어디 있는나 바로 나라고 하는구나
 * 弱水(약수):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 歲星(세성): 목성

127.

어리석다 봉조야 웃노라 저 봉조야
 구만리 장천에 무슨 일로 올라가느냐
 구렁에 뱀새 참새는 못내 즐거워 하는구나
 * 鵬鳥(봉조): 대붕. 하루에 구만 리를 날아간다는 상상의 큰 새.

一二八.

날을 못지마라 前身이 柱下史ㅣ되
靑牛로 나간後에 몇힌마니 도라온다
世間이 하 多事호니 온동만동호여라
不須問我 前身柱下史
靑牛去後幾時還
世間太多事來不來

一二九.

是非 업슨後ㅣ라 榮辱이 다不關타
琴書를 호튼後에 이 몸이 閑暇호다
白鷗ㅣ야 機事를 니즘은 너와 낸가 호노라
是非亡矣 榮辱何關
琴書散後此身閑
白鷗乎忘機吾與爾

一三〇.

아침은 비오드니 느지니는 바람이로다
千里 萬里入길헤 風雨는 무슨일고
두어라 黃昏이 머릿거니 수여간들 엇드리
朝雨晚風
千里萬里 風雨何爲
黃昏尙遠 休歟歸止

一三一.

내 가슴 헤친 피로 님의 양주 그려내어
高堂素壁에 거러두고 보고지고
뉘라서 離別을 삼겨 사름 죽게 호논고
披來胸裏血 寫出檀郎面
掛之高堂素壁間
誰爲離別使人死

128.

내 누구인지 묻지 마라 전생이 주하사라
청우타고 나간 후에 몇 해만에 돌아왔다
세상이 일이 많으니 온지 만지 하구나
* 柱下史(주하사): 본래는 중국 주나라 때 장
서실을 맡아보던 관직이었으나 노자가 이
벼슬을 한 후 노자를 이르는 말이 됨.
* 靑牛(청우): 노자가 도덕경 5천여 권을 저
술한 후 서유했을 때 타고 간 소.

129.

시비가 없는 뒤라 영욕이 상관없다
거문고와 책 홀은 후에 이 몸이 한가하다
백구야 세상을 잊음은 너와 나인가 하노라

130.

아침에 비오더니 늦어지니 바람이로다
천리 만리 길에 비바람은 무슨 일인가
두어라 황혼이 멀었으니 쉬어간들 어떠리

131.

내 가슴 헤친 피로 님의 모습 그려내어
높은 집 흰 벽 위에 걸어두고 보고지고
뉘라서 이별을 만들어 사름 죽게 하는가

一三二.

寒食 비온밤의 봄빛치 다 퍼졌다
 無情흔 花柳도 때를아라 피엇거든
 엇더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오느고
 寒食夜雨 春光遍
 花柳無情亦知時
 底事檀郎 去不來

一三三.

어젯밤 비온 後에 石榴꽃이 다피엿다
 芙蓉塘畔에 水晶簾을 거더두고
 늘 向흔 기픈 시름을 못내 프리흔느뇨
 昨夜雨 石榴花開
 芙蓉塘畔 捲起水晶簾
 等閑愁爲誰苦

一三四.

窓밖기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보니
 蕙蘭蹊徑에 落葉은 므스일고
 어즈버 有限흔 肝腸이 다 그칠가 호노라
 窓外窓窻認郎來
 蕙蘭蹊徑 落葉又何有限
 肝腸盡斷

一三五.

銀釭에 불뵈고 獸爐에 香이 진지
 芙蓉 기픈 帳에 혼자 씨야 안자시니
 엇더타 현스흔 저 更點아 줌못드러 호노라
 銀釭燭獸爐燼
 芙蓉深帳獨覺
 遲遲更漏 夢未成

132.

한식 비온 밤에 봄빛이 다 퍼졌다
 무정한 꽃버들도 때를 알아 피었는데
 어찌한 우리 님은 가고 아니 오는가

133.

어젯밤 비온 후에 석류꽃이 다 피었다.
 연꽃 핀 연못가로 수정림 걷어두고
 누구 향한 깊은 시름을 못내 풀려 하는가

134.

창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가 일어나보니
 난초 핀 좁은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어즈버 끝 있는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135.

은 등잔에 불이 밝고 화로에 향이 지고
 부용 깊은 장막에 혼자 깨어 앓았으니
 어떠타 요란한 저 중에 잠 못들어 하노라
 * 更點(경점): 조선 시대에 하룻밤의 시간을
 다섯 경으로 나누고 매 경을 알릴 때 울리
 는 북.

一三六.

봄이 왔다흐되 消息을 모로더니
 냇ㄴ에 푸른 버들 네 먼저 아도괴야
 어즈버 人間離別을 또 엇지 흐느다
 聞道春還 未聞消息
 溪邊柳
 爾先知人間離別又將何

一三七.

人間을 찌나니는 이몸이 閑暇하다
 簑衣를 니피치고 釣磯로 올라가니
 운노라 太公望은 나 간 줄을 몰래라
 離了人間此身閑
 簑上釣磯
 却笑太公望底事去無還

一三八.

南山 기픈골에 두어 이랑 니리두고
 三神山 不死藥을 다 키야 심근말이
 어즈버 滄海桑田을 혼자 볼가 흐노라
 南山深山洞數頃田
 蔣遍三神山不老草
 滄海桑田我獨見

一三九.

술이 몇가지오 淸酒와 濁酒ㅣ로다
 먹고 醉할선정 淸濁이 관계흐랴
 둘뵈고 風淸한 밤이여니 아니썸들 엇드리
 酒有幾種 淸兮又濁
 得酒已矣 淸濁何分
 月白風淸 惟醉無醒

136.

봄이 왔다 하나 소식을 모르더니
 냇가에 푸른 버들 너 먼저 아는구나
 어즈버 인간이별을 또 어찌 하느냐

137.

세상을 떠나오니 이 몸이 한가하다
 도롱이를 여미고 낚시터로 올라가니
 웃노라 태공망은 나 간 줄도 몰라라.
 * 太公望(태공망): 강태공. 중국 주나라 초기
 의 정치가로 무왕을 도와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평정함.

138.

남산 깊은 골에 두어 이랑 일귀두고
 삼신산 불사초를 다 캐어 심어두고
 어즈버 창해상전을 혼자 볼까 하노라
 * 三神山(삼신산): 중국 전설에 나오는 봉래
 산, 방장산, 영주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진시황과 한무제가 불로불사약을 구하기
 위하여 동남동녀 수천 명을 보냈다고 함.

139

술이 몇 가지인가 청주와 탁주로다
 먹고 취하는 것 청탁이 관계하랴
 달밝고 바람 맑은 밤이니 아니 깬들 어떠리.

一四〇.

반되 불이 되다 반되지 왜 불일소나
돌히 별이 되다 돌이지 왜 별일소나
불인가 별인가 하니 그를 몰라 하노라
螢雖爲火 螢也非火
石雖爲星 石也非星
或火或星 此未解者

一四一.

곳지고 속님나니 時節도 變호거다
풀소게 푸른 버레 나뉘되야 々다는다
뉘라서 造化를 자바 千變萬化호는고
花落葉生 時節變
草底靑蟲作蝶飛
誰持造化 千變萬化

一四二.

느저 날서이고 太古入적을 못보완자
結繩을 罷호 後에 世故도 하도할사
출하로 酒鄕에 드러 이 世界를 니즈리라
生胡晚不太古
結繩罷世故多
寧入酒鄕 忘世界

一四三.

樽中에 술이 잇고 座上에 손이 々득
大兒 孔文學를 고쳐 어더 붙씨이고
어즈버 世間餘子를 닐러 므슴호리
樽中酒 座上客
大兒孔文學
那復見世間餘子何復道

140.

반딧불이 불이라는데 반디이지 왜 불인가
돌이 별이라는데 돌이지 왜 별인가
불인가 별인가 하니 그것을 몰라 하노라

141.

꽃 지고 속잎 나니 계절도 변하는구나
풀 속에 푸른 벌레 나뉘되어 날아간다
뉘라서 조화를 잡아 끝없이 변화하게 하는가

142.

늦게 태어나서 태고 때를 못 보았는데
결승을 파한 후에 속세일도 많고 많아
차라리 술집에 들어 이 세계를 잊으리라

* 結繩(결승): 숫자나 역사적 사건 등을 새끼나 가죽끈을 매어 그 매듭의 수효나 간격에 따라서 나타낸 일종의 문자.

143

술통에 술이 있고 술상에는 손이 가득
대아 공문거를 고쳐 얻어 볼 것인가
어즈버 세상 나머지 사람들을 말해 무엇하리
* 大兒 孔文學: 공윤. 후한 사람으로 공자의 20세 손으로 어려서 재주가 뛰어나 현재 때 북해의 재상이 됨. 강직한 성품으로 술을 좋아하고 손님대접을 즐김.

一四四.

노래 삼긴 사람 시름도 하도할샤
 닐러 다 못닐러 불러나 푸듯든가
 眞實로 풀릴거시면은 나도 불려 보리라
 始作歌者正多愁
 言不能盡歌以解
 歌可解愁吾亦歌

一四五.

步虛子 못춘 後에 與民樂을 니어 ㅎ니
 羽調 界面調에 客興이 더어세라
 아히야 商聲을 마라 히저물가 ㅎ노라
 步虛子將闕 與民樂繼奏
 羽調界面調 客興添
 莫彈商聲 恐歲暮

144.

노래 만든 사람 시름도 많았는가
 일러 다 못 일러 불려서 풀었던가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려 보리라

145.

보허자 마친 후에 여민락을 이어 하니
 우조 계면조에 객흥이 더하구나
 아히야 상성을 하지마라 해 저물까 하노라
 * 步虛子(보허자): 왕세자의 거동 때 출궁악
 으로 쓰인 궁중 음악.
 * 與民樂(여민락): 임금의 거동 때나 궁중의
 잔치 때에 연주하던 아악곡.
 * 羽調(우조): 거문고와 가야금 따위의 높은
 곡조
 * 界面調(계면조): 국악에서 쓰는 슬프고 애
 타는 느낌을 주는 음조.
 * 商聲(상성): 중국 5성(聲)의 둘째 소리